

정통기독교 비판가¹⁾들의 논리구성²⁾

정통기독교 비판가들은 어떤 논리를 사용하여 정통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가?

강 상 우(겸임교수)

논문 요약

본 연구는 정통기독교 비판가들이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떠한 논리를 전개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자의 견해에 의하면 정통기독교 비판가들이 정통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전술로는 “손가락 없애기” 전술과 “어두운 하늘 맹목적 쳐다보기” 전술이다. 이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는 비판가들의 주장에서 가져온 명칭이다.

구체적으로 정통기독교 비판가들의 전술은 다음과 같다. 1) ‘손가락 없애기’ 전술은 먼저,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술로 잘못된 극단적 성경해석을 인용하거나 과거 과학과 상반된 성경해석을 인용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다른 텍스트들에게 정경적(正經的)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전술로는 정경 이외의 비정통기독교 문서에 권위를 부여하거나, 타종교 문서에 권위를 부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 ‘어두운 하늘 맹목적 쳐다보기’ 전술로는 먼저 어두운 하늘에서 실체를 쳐다볼 것을 요구한다. 절대자를 찾으라는 것이다. 성경의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실체를. 그리고 어두운 하늘에서 역사적 예수만을 쳐다볼 것을 요구한다. 이들이 역사적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는 이유는 역사적 예수는 인간 예수다. 거기에는 하나님인 예수 즉 그리스도인인 예수는 없다. 비판가들은 인간 예수만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왕좌에서 예수를 폐위시키고, 인간 예수에만 천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는 곧 인간 예수의 영성을 본받고 인간 예수처럼 높은 경지의 영적 상태에 오를 것을 요구하게 된다. 또한 실천을 강조하면서 어두운 하늘만을 쳐다보도록 한다. 시선을 빼앗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지 못하도록 말이다.

마지막으로 이들 정통기독교 비판가들의 전술로부터 정통기독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권위에 대한 중요성을 지각하고, 더욱더 성경의 하나님 말씀됨을 강조하는 교육으로 이어져야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성경해석이 바로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성경해석에 더욱 더 신중을 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통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실천만을 통해서 기독교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더욱 더 올바른 교리에 근거를 둔 사회적 실천(행동)에 더욱더 매진함으로써 기독교가 입(lip service)의 종교가 아닌 생동적으로 역동하는 기독교임을 나타내 보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정통기독교. 기독교비판가. ‘손가락 없애기’ 전술. ‘어두운 하늘 맹목적 쳐다보기’ 전술.

1) 본고에서 “정통기독교 비판가(正統基督教 批判家)”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의 절대적 권위를 부정하고 영지주의 문서와 같은 다른 텍스트에 권위를 부여하여 정통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2) 이 글을 통해 이국진 목사님과 박명룡 목사님께 감사드린다. 왜냐하면 이국진 (2011). 『예수는 있다』. 개정증보판. 서울: 국제제자훈련원과 박명룡 (2008). 『예수는 신화가 아니다』. 서울: 누가. 오래 전에 이분들의 책을 읽었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비로소 이 글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에서다.

I 들어가는 말

1 데카르트의 유골, 도넛 같은 주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데카르트의 유골은 1650년에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데카르트가 죽은 이후 3번이나 관 뚜껑이 열렸다가 닫혔었다. 르네 데카르트의 유골은 사실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걸치면서 여기저기를 떠돌아 다녔었다. 그런 이유에서 인지 몰라도 데카르트의 유골은 아직도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그런데 당시 논란의 중심에 서있었던 그의 유골(遺骨)에 대해 일부에서 그렇게 쉽게 진위성(眞僞性)을 인정할 이유는 무엇일까?(Short, 2013: 6-7. 강경이, “옌긴이의 글: 데카르트의 유산 위에 지어진 근대의 여정을 뒤쫓다.”, 6-9; 특히 “4장 사라진 유골” 203-255와 “6장 풀리지 않는 의문”, 311-345 참조). 소크라테스는 어떤가. 휴즈(Bettany Hughes)는 자신의 책, 『아테네의 변명』(The Hemlock Cup)에서 소크라테스를 “도넛 같은 주제”라고 표현한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에 관한 자료는 무궁무진(無窮無盡)하지만 정작 주인공의 자리는 텅 비어있기 때문이다.”(Hughes, 2013: 10-11, 강경이, “옌긴이의 글: 기원전 5세기 아테네를 재현하다”, 10-13 참조). 그런데도 일반적으로 소크라테스의 존재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역사적 자료는 어떤가? 이들(Rene Descartes나 Socrates)의 자료에 비해 매우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다른 자료들에 대해서는 거의 의심 없이(어떻게 보면 맹목적으로 보이기까지도 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신뢰하면서 왜 예수님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신뢰하지 못한 그들의 마음속에 애당초부터 전적으로 예수님의 자료에 대해 믿지 않으려고 하는 편견(偏見)이 들어있기 때문일 것이다.³⁾ 구체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료의 진위의 접근에 앞서 예수님의 신성(神性)에 대해 단호하게 배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근본적

3) 이런 현상은 최근에 다시 불붙은 ‘나의 아내’라는 구절에 대한 해석에도 볼 수 있다. 명함보다 작은 3.8cm×7.6cm 크기의 파피루스 문서에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아내’ ... ”라는 구절로 2012년 미국 하버드대 신학대학원 캐런 킹(Karen King) 교수가 문서를 공개한 이후 위조 여부를 놓고 논란이 지속돼 왔었다. 그런데 최근(한국시간 2014.04.11)에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컬럼비아대와 하버드대,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들이 문서를 분석한 결과 현대에 들어 위조된 것이 아닌 고대문서일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 파피루스 문서는 정통기독교의 문서가 아니라 기독교의 외부의 대항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문서의 진위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증거를 얘기하는 이들이 문맥도 잘린 그 작은 조각을 가지고 마치 전체인 것처럼 환원주의적 오류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황당해할 뿐이며, 그 당시에도 그러한 반기독교적 주장들이 하도 많았기 때문에 그 문서는 당시에 존재하였던 반기독교적 주장을 기록한 것의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의 아내’는 교회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연합뉴스>에서 속보(速報)로 보도하는 것에 대해, 또 ‘DaumTop노출뉴스’라고 호들갑을 떠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 할 것이다. 다만 그것이 반기독교적 정서를 가진 이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될 뿐이다.(백나리, “예수 아내 언급 파피루스, 고대문서 가능성 크다”<연합뉴스>(2014.04.11); <http://v.media.daum.net/v/20140411091109200?f=o>. 참조)

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의 세계관에 근거한 이들의 선택임을 또한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지적은 예수 세미나(Jesus Seminar)의 관점에 대한 리처드 T. 프랭스(R. T. France)의 비판적인 지적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프랭스는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예수 세미나의 관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복음서의 문학적 역사적 성격을 생각할 볼 때, 복음서를 예수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에 관한 자료이자 기독교의 역사적 기원을 알려 주는 원천으로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 어떤 학자가 복음서의 기록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것인지를 결정하는 요소는, 그가 얼마나 엄격한 역사적 사고를 하는가에 달려 있기보다는 그가 얼마나 '초자연적' 세계관에 개방적인가에 달려 있다.(Zacharias and Geisler, eds., 2005: 111-112 재인용).

로버트 스타인(Robert H. Stein)도 이들 세계관의 차이가 가져오는 결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간파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던 것이다. “처음부터 초자연성의 가능성을 배제한 그리스도의 생애 연구는 복음서의 그리스도와는 전혀 다른 ‘역사적 예수’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초자연성에 대하여 열린 태도를 취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연구는 모두 동정녀에게서 탄생하고, 성령의 기쁨부음을 받으며,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며,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늘에 오른 예수와 전혀 다른 예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류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초자연적인 예수다. 왜냐하면 이 초자연적인 예수만이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거룩 사이의 간격을 메울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 구원자인데, 오직 초자연적인 예수만이 이 구원자가 될 수 있다.”(Stein, 2001: 11)

정통기독교 비판가들의 기독교(예수)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들의 정통기독교에 대한 비판의 논리전개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정통기독교의 세계관과 다른 세계관을 소유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통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들 정통기독교 비판가들이 어떠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자의 개인적 견해로 우리나라의 정통기독교 비판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논리의 전형적 형태로 뽑을 수 있는 것은 아마 비교종교학자인 오강남 전(前)교수가 자신의 책에서 사용하고 있는 논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⁴⁾(비교종교학자라는 그의 경력 때문에 이러한 논리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비록 그가 어렸을 때에 기독교를 접했다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의 전공이 그를 사실상 지배하였기에 이러한 논리의 전개가 가능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물론 또 다른 종교학자인 길희성 교수⁵⁾에게서도 비슷한 논리전개를

4) 오강남 교수에 대한 김국진 목사님의 다음의 비판적 지적은 매우 유용하다. 오 교수님의 취약점은 프레크와 갠디(Timothy Freke & Peter Gandy)가 범한 오류(誤謬)하고 유사하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오강남 교수는 권위의 논증을 자주 사용한다. ... 둘째, 오강남 교수는 부재(不在)에의 논증을 자주 사용한다. ... 셋째, 오강남 교수는 유사(類似)에 의한 동일 논증을 사용한다. 비슷한 것은 무조건 같다고 보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 넷째, 오강남 교수는 방법론 자체가 진리와 거짓이 있다고 착각한다. 그는 21세기 시대정신에 따라 다원주의적 태도가 옳고 배타주의적 태도는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김국진, 2011: 18-20).

5) 다음은 오강남 교수님의 길희성 교수님에 대한 평가다. “길희성 교수는 ‘대속적기독교론(代贖的基督

만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출판 된지 거의 10년이 지난 오강남 교수의 『예수는 없다』(초판 2001년)⁶⁾는 정통기독교 비판가들이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형적인 논리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이유로 오강남 교수의 『예수는 없다』를 중심으로 정통기독교 비판가들이 정통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한 논리 전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오강남 교수는 다른 책들에서도 밝힌 것처럼 자신의 정통기독교 비판은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더 높은 기독교를 지향하기 위한, 다시 말해서 “표층종교에서 심층종교”로 가기 위한, 또는 “정직하고 의미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건전한 비판⁷⁾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통기독교의 관점에서 볼 때에 오강남 교수의 논리전개는 결과적으로는 정통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오강남 교수의 논리 전개는 외형적으로 교회의 병폐를 얘기하고 더 높은 수준의 기독교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정통기독교의 핵심적(核心的) 근본교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唯一性)을 부정하며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神性)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구원에 있어서 종교다원주의적 시각으로 눈을 돌리게 하기 때문이다.(寬容과 相生이라는 美名으로) 오강남 교수의 이러한 견해는 『예수는 없다』에 다음과 같이 요약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이 책에서 할 이야기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결국 오늘 여기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어떻게 하면 오늘 같은 정보 시대에 사는 우리가, 이 시대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모든 역사적, 과학적, 문헌학적 정보를 다 가지고서도 여전히 정직하고 의미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 책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려는 것은 기본적으로 1) 내가 한때 가지고 있던 신앙내용을 진리자체라고 하는 오해를 털어내고, 내 정신적 자라남이 무리 없이 계속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 2)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어야 한다고 믿는 문자주의(literalism)에서 일단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⁸⁾, 3) 문자주의에서 해방될 때 자연스럽게 더욱 깊고 의미 있는 신관(神觀)이 생길 수 있고, 4) 이런 새로운 신관과 함께 예수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고, 5) 이렇게 달라진 눈을 갖게 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길을 함께 가는 ‘길벗’으로 모시게 된다는 것, 6) 그와 함께 길을 가면서 그의 마음을 품는 체험, ‘메타노이아’의 체험을 갖게 되면, 예수님처럼 완전히 자유인이 된다는 것, 이렇게 될 때 그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진정 “남을 위한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 등이다.(오강남, 2005: 20).

論)(substitutionary Christology) 즉 ‘Jesus as Rescuer’를 부정한다. 그리고 ‘예수보살론’(Jesus the Bodhisattva)을 주장한다.(오강남, 2005: 301). 참고로 김희성 (2005). 『보살예수: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창조적 만남』. 2쇄. 서울: 현암사.

6) 오강남, 『예수는 없다: 기독교 뒤집어 읽기: 원로 비교종교학자가 필생의 연구 끝에 찍은 마침표』는 2001년에 현암사에서 출판되었다. 본 연구자는 31쇄(2005년)를 참고하였다. 나는 대학시절 현암사에서 나온 법률용어사전을 사서 봤기 때문(대부분 科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에 현암사라는 출판사는 나에게 매우 익숙하였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통기독교와 거리가 있는 종교서적이 나온다니 좀, 거시기하다.

7) 일부 비판의 경우에는 정통기독교에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할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기에 본 연구자는 이에 대한 글을 쓰는 것도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8) 박영호는 맹자를 인용해 문자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한다. “일찍이 맹자(孟子)가 이르기를 ‘글을 다 믿으면 글이 없는 것보다 못하다’(盡信書則 不如無書- 『맹자』 <진심하편>)고 하였다.”(박영호, 2000: 33 재 인용).

2 연구문제

본 연구를 위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정통기독교 비판가들은 어떤 논리를 사용하여 정통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가.

연구문제 1-1: “손가락 없애기” 전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the Bible)의 권위를 부정하기 위해 어떤 논리를 전개하는가.

연구문제 1-2: “어두운 하늘 맹목적 쳐다보기” 전술: 예수 그리스도(Jesus Christ)의 유일성을 부정하기 위해 어떤 논리를 전개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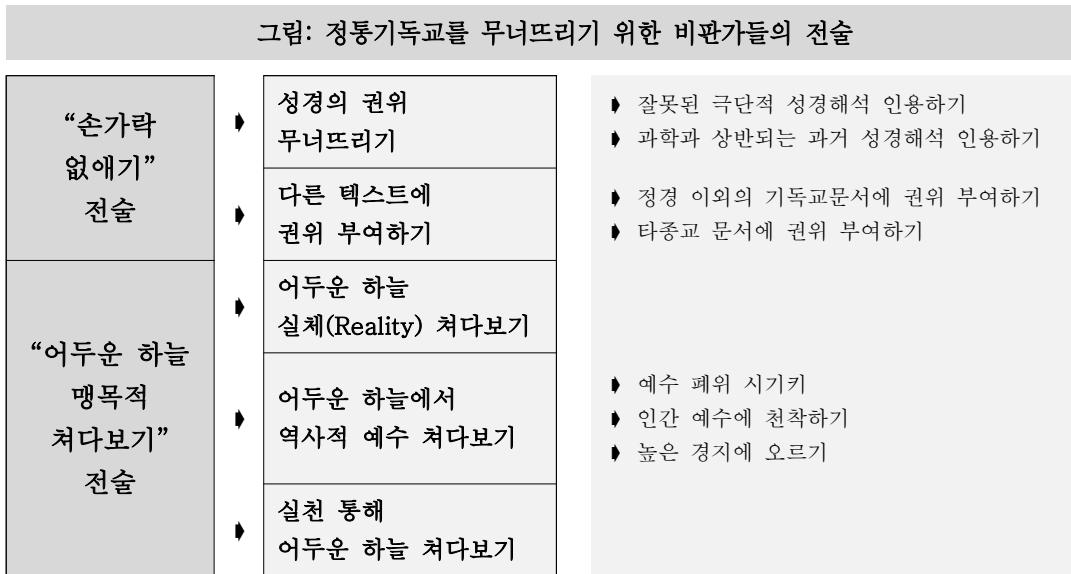
정통기독교 비판가들이 어떤 논리전개로 정통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에 대한 전술을 기술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1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들이 사용하는 전술에 대해서 기술할 것이다. 그리고 1-2에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떠한 전술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정통기독교 비판가들은 정통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린다.(이를 본 연구자는 “손가락 없애기” 전술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들은 손가락을 보지 말라고 주문 한다. 성경을 보지 말라고 한다.⁹⁾ 너무 문자에게 치우치지 말라고 한다. 그런 후에 그들은 달만 볼 것을 힘주어 열변을 토한다. 정통기독교 비판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정하기 위해 그들은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비판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게 하는 전술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눈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아주 추상적인 절대자(하늘)만 바라볼 것을 요구한다. 사실 손가락(성경)이 없이 하늘을 보면 그 하늘은 온통 캄캄하게 보일 뿐이다. 하늘이 칠흑(漆黑)같이 어두운데 하늘에 있는 별이나 달은 보이지 않는데도 말이다. 왜냐하면 계시(啓示)가 없는데 어떻게 밝음이 있을 수 있겠으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기독교 비판가들은 하늘만 쳐다 볼 것을 강요만 한다.(나는 이를 “어두운 하늘 맹목적 쳐다보기” 전술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그 캄캄한 하늘을 가리켜서 그것이 바로 신, 절대자, 궁극적 힘 등의 명칭을 사용한다. 정통기독교 비판가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눈이 떨어지도록 쳐다볼 것을 요구한 존재는 바로 다름 아닌 뉴에이지나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신(god[s])에 불과할 뿐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god[s])을 바라보게 함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유일한 구원의 연결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단절을 꾀하게 하는 것이다.(최소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9)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리키는 곳을 보지 못하고, 손가락에만 관심을 갖는다. 이것이 바로 문자주의자다. 문자주의자 종교는 그들이 믿는 종교의 창시자의 손가락을 하나의 참된 손가락이라고 숭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손가락이 가리키는 깨달음에 대한 이해가 없다.”(Freke and Gandy, 2009b: 18).

님이며 유일한 증보자라는 사실을 부정하면서 말이다). 다음의 문장은 이들 정통기독교 비판가들의 정통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한 이러한 논리전개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면 안 된다. 문자나 교리 같은 외부적 수단은 결국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아, 그 손가락은 우리가 달을 보게 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오히려 우리의 주목을 독점하여 우리가 달을 보는 일을 방해할 경우 분명히 잘라 버려야 한다. 비록 부처나 조사라 하더라도 우리가 달을 본다고 하는 그 한 가지 목적에 걸림이 되면 부처도 조사도 ‘죽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임제 선사가 말한 ‘살불살조’다.¹⁰⁾(오강남, 2006: 249-250).

정통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한 이들 정통기독교 비판가들의 전술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한 마디로 이들은 “손가락은 보지 말라.(‘손가락 없애기’ 전술) 달만 보라.(‘어두운 맹목적 하늘 쳐다보기’ 전술) 달을 보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은 죽여라.” 정통기독교 비판가들의 말처럼 달을 보는데 방해되는 것은 모두 죽여야만 하는 것일까? 사실 이들의 말처럼 달을 보는데 방해되는 것을 죽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손가락(성경[啓示])없이 본 그 하늘은 캄캄 하늘이어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하늘을 바라본다고 해도 하늘은 그저 캄캄한 암흑에 불과하기 때문이다.¹¹⁾ 본고

10) ‘봉불살불 봉조살조’(逢佛殺佛 逢朝殺朝).

11) “손가락 없애기” 전술은 다음과 같이 발전하게 될 것이다. “손가락을 보지 마라. 달만 보라.” ⇨ “손가락은 중요하지 않다. 달만 보라.” ⇨ “손가락은 필요 없다. 달만 보라.” ⇨ “저기 달 보이지(!); “맹목적 하늘 보기” 전술도 또한 다음과 같이 발전하게 될 것이다. “손가락은 필요 없다. 하나님만 보라” ⇨ “손가락

에서 연구자는 구체적으로 정통기독교 비판가들이 정통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손가락 없애기” 전술과 “어두운 하늘 맹목적 쳐다보기” 전술을 어떻게 구사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전술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약간 본 연구에서 옆길로 가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통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한 이들 비판가들의 전술”에서 어떤 전술이 논리적으로 우선하는가 하는 문제다. 본 연구자는 “1. 손가락 없애기” 전술이 “2 어두운 하늘 맹목적 쳐다보기” 전술에 우선한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손가락이 존재하는 한 어두운 하늘을 맹목적으로 쳐다보는 일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이 존재하고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 하늘을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2위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incarnate)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성경이 존재하지 않고, 성경을 보지 못한다면 하늘만 쳐다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님은 물론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인간이심 또한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기독교 비판가들은 손가락 없애기를 먼저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스타인(Robert H. Stein)이 예수님의 동정녀 수태와 탄생이 본질적으로 성경관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역할(오늘날의 십볼렛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동정녀 수태를 고백하느냐 부인하느냐의 중요성은 그것의 기독교적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다. 동정녀 수태와 탄생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을 기록하고 순결하게 하기 위하여 동정녀 탄생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걸린 문제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성경관이다. 『근본적 가르침들』 [The Fundamentals]의 저자들이 보기에 동정녀 탄생은, 어떤 사람의 성경관을 시험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역할을 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무오한 신앙의 규범으로서의 성경을 명백하게 거부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당신은 동정녀 탄생을 믿는가?’라는 질문은 어떤 사람의 성경관을 시험하는 오늘날의 십볼렛 역할을 한다(삿12:6)(Stein, 2001: 90).

디팍 초프라(Deepak Chopra)¹²⁾는 그의 책 『제3의 예수』 (The Third Jesus: The Christ We Cannot Ignore, 2009)에서 세 번째 예수를 주장한다. 물론 그가 주장하는 세 번째 예수란 첫 번째 예수인 역사적 예수(디팍 초프라에 의하면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 신약의 예수)와도 다르고 그렇다고 제2의 예수인 신학이 탄생시킨 추상적 존재(Chopra, 2009: 20)인 예수와도 다른 예수로 “신-의식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세상을 구원하려 했[던]”(Chopra, 2009: 23) 예수를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다루는 세 번째 예수가 있다. 이는 가장 신실한 기독교 신자조차도 그 존재 여부를 짐작하지 못할 만큼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고, 무시해서도 안 되는 예수다 …… 이런 두 예수, 즉 역사적 존재[저자에 의하면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 신약의 예수]와 신학이 탄생시킨 추상적 존재에게는 모두 비극적인 면이 있다. 왜냐하면 이 둘이야말로 예수가 제자들에게 강조한 핵심 가르

은 필요 없다. 하나님만 보라” ⇨ “손가락은 필요 없다. 절대자만 보라” ⇨ “손가락은 보지마. 실체(Reality)가 보이지” ⇨ “손가락은 없다. 영성(Spirituality)만 보라.” ⇨ “신비한 힘이 느껴지지(!). 그래 그거야”.

12) 초프라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http://book.daum.net/detail/book.do?bookid=KOR9788944803086> 참조.

침, 요컨대 어떻게 하면 신-의식에 도달할 수 있는지 그 지혜를 가려버리기 때문이다. 나는 진실로 예수가-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 아니라-그 자신이 선언했듯이, 한 사람의 구원자였음을 말하고 싶다. 예수는 가장 높은 깨달음의 경지를 보여준다. 성년의 짧은 기간 동안, 오직 그 깨달음을 가르치고 묘사하며 미래 세대에게 전해주는 데 힘썼다. “예수는 신-의식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세상을 구원하려 했다”(Chopra, 2009: 20, 23).

어떻게 해서 디팍 초프라는 성경과는 거리가 먼 가장 높은 깨달음의 경지를 보여주는 제3의 예수를 주장하게 된 것일까?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그가 사용한 텍스트가 바로 정통기독교의 정경(正經, Canon)만이 아니라 그의 입맛에 따라 다른 텍스트들(다른 종교적 전통과 가르침)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디팍 초프라는 “손가락 없애기” 전술을 100%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손가락 없애기 전술과 진배없는 전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어떻게 보면 디팍의 전술이 더 치명적일 수 있다. 참과 거짓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참이라는 것을 정확하지 알지 못하면 더욱 더 혼동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¹³⁾

‘손가락 없애기 전술’에 구사하기 이전에 이들은 먼저 의문(疑問)을 제기한다. 아무런 이상도 없는 것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거나, 또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을 마치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가지지도 않아도 될 의문을 가지게 한다. “과연 교회 안에 구원이 있을까?”(오강남, 2005: 7-13)의 물음은 바로 이러한 의문을 갖게 하는 시발점이 된다. “기독교신학은 이웃 종교와의 대화관계에서 나온 산물’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신학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가 지금껏 가지고 있던 ‘국지주의적 신학’(parochial theology)이나 ‘부족신관’(tribal god)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입니다.”(오강남, 2005: 9)라는 문장은 정통기독교 즉 우리의 과거 신앙에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길희성 교수도 마찬가지다. 프랑스 시인 폴 발레리(Paul Valery)의 말은 인용하면서 그러한 의문을 크게 증폭시킨다. “그대가 용기 내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멸지 않아 그대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길희성, 2013: 20). 정통기독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나 되는 것처럼 의문을 제기한다. 이런데 문제는 왜 오늘날 이들의 이와 같은 문제 제기에 많은 사람들이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일부 기독교의 반사회적 행동으로 인한 사회적 신뢰도의 하락과 다원주의적 사회가 갖는 경향, 특히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는 포스트모던적 사고가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특히 포스트모던적 사고는 “역사=승자의 기록”이라는 등식으로 논리를 구성함으로써 모든 것을 상대화시킴으로써

13) 디팍 초프라는 레너드 므로디노프와 함께 쓴 책 Deepak Chopra and Leonard Mlodinow (2011). *War of the Worldview: Science vs. Spirituality*. 류운 역 (2013). 『세계관의 전쟁: 과학과 영성, 승자는 누구인가?』에서 디팍 초프라는 종교를 옹호하고, 영성을 옹호하지만 그의 옹호하는 영성은 기독교와는 전혀 무관한 다른 종교적 영성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향을 디팍이 가진 것은 그가 인용하는 텍스트가 성경이 아니라 다른 종교텍스트와 전통, 그리고 비정통기독교 텍스트를 인용한 결과 때문임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예로 들자면, 『도마복음』(180, 185), 『바가바드기타』(67, 372), 사마디(samadhi, 의식의 zero state, 113-114), 크리슈나무르티(J. Krishnamurti, 342-343)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통기독교에 대해 문제점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정통기독교를 흔들기에 들어가는 것이다.

3 연구자의 관점

성경에 대한 나의 관점을 밝혀야 될 것 같다. 정통기독교 비판가들이 볼 때(오강남[2005] 교수의 시각에서 볼 때)에 본 연구자의 성경관은 확실하게 문자주의다. 아니 이들은 본 연구자를 근본주의자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¹⁴⁾ 왜냐하면 본 연구자의 성경관은 1)성경무오설, 2)예수의 동정녀 탄생, 3)기적, 4)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5)인간의 죄성, 6)대속, 7)예수의 재림과 심판 등과 같은 교리를 모두 받아들이기 때문이다.(이국진, 2011: 31). 그렇다고 해서 세계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극단적인] 근본주의자 하고는 구별된다. 왜냐하면 본 연구자 또한 이국진 목사가 지적한 것처럼 “자신들의 신앙이 옳음을 주장하며 반사회적이고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형태를 보이는 사람들을 가리켜 흔히 근본주의자라고 부르는데, 필자가 여기에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이국진, 2011: 31, 1장 2번 각주)¹⁵⁾ 본 연구자도 오늘날 사회의 물의를 몰고 온 극단적 근본주의자들의 성경해석에 매우 물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한다. 그리고 이러한 성경해석은 큰 그림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절대적 권위(絕對的權威)를 상대적으로 낮추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 성경해석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피해야만 하는 것이다.

II 정통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한 이들 비판가들의 전술

1 “손가락 없애기” 전술

14) 일부 그리스도인들 중 문자주의에 안주한 이유는 ‘상대주의에 대한 반발’에서 찾을 수 있다. “세상뿐 아니라 교회까지도 괴롭히는 상대주의는 더 활성화되었다. 많은 사람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영감을 주는 이야기들을 담은 책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반면에 아마도 이러한 상대주의에 반발하여 성경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있는 상당수의 사람은, 본문이 실제로 말하는 바를 주의 깊게 들여다 보기를 거부하는 문자주의에 안주하려고 한다.”(McCartney and Clayton, 2000: 5) 그러나 명심할 것은 “이것 또한 하나님이 그분의 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 있고 역사하는 메시지를 모호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처에 있는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고 섬세하게 성경을 이해하기를 열망한다.”(Ibid, 5).

15) 그런 점에서 폴 헬름(Paul Helm)의 다음의 지적은 매우 의미 있다. “성경에서 도출된 자료들을 진술하는 일에 우리의 이성적 추론이 작용해야 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성경이 일관성 있다.(self-consistence)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한 공리다. 그러므로 성경적 자료들 가운데서 겉으로 보기에 모순되고 일관성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결국 해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런 해결을 돕는 것이 바로 이성의 역할이다. 물론 다른 모든 지적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때로는 다 풀리지 않는 매듭이나 예외가 존재할 수 있음을 허용해야 하지만 말이다. 성경에서 자료들을 할 수 있는 한 일관성 있는 형식으로 이끌어내면서, 그 자료들로부터 나온다고 판단되는 모든 것을 연역해 내고, 그 결과로 나온 교리가 다른 기독교 교리에 미치는 함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이성의 자리다.”(Helm, 2004: 26)

오강남 교수님의 책 『예수는 없다』(2005)의 본격적으로 “II. 성경대로 믿는다?”(오강남, 2005: 61-115)에서 그는 손가락 없애기 전술을 사용한다.¹⁶⁾ 그러나 자세히 보면 오강남 교수는 그 이전부터 “손가락 없애기” 전술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오강남 교수는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물으면서 시작한다.(오강남, 2005: 27) 상당수 정통기독교인들이 다음과 같은 것을 믿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오 교수가 문제가 된 것으로 지적한 것이란 바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 성경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로서, 그것은 일점일획도 틀림이 없다는 것. 둘째, 예수만이 유일한 구세주로서 그를 구주로 믿고 받아들여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셋째, 기독교만이 유일한 참 종교로서 세상 사람을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 선교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 넷째,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신학만 유일한 진리로서 종래까지의 신학을 재검토하고 그것을 더욱 의미 있게 재구성하려는 노력, 특히 역사비평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려는 진지한 노력 같은 것은 모두 거들떠볼 것도 없이 ‘인본주의 신학’이나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규정하는 것 등이다. 성경만, 예수만, 기독교만, 우리 신학만이 라고 하는 ‘만만주의’의 대명사인 셈이다. 영어로 ‘one and the only syndrome’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좀 세분해서 전통적인 신학 용어로 나열하면 1. 성경무오설 2. 동정녀 탄생 3. 기적 4. 육체부활 5. 인간의 죄성 6. 대속. 7. 예수의 재림과 심판 등을 무조건 문자적으로 인정하고 의심 없이 믿어야 ‘잘 믿는 것’이고 그래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오강남, 2005: 27).

길희성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간주되는 성서의 언어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성서가 아무리 성령의 영감으로 씌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그것이 인간이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주어진 한 결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 인간들처럼 입을 가지고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문자적으로 취할 일이 아님은 자명하다.”(길희성, 2003: 77).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정통기독교 비판가들은 사용하는 “손가락 없애기” 전술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손가락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정하기 위해서 성경을 여자적(如字的) 의미로 해석하는 극단적 근본주의(ultra fundamentalism)에 대한 사례를 통한 비판과 더불어 잘못된 성경해석에 근거한 과거 잘못된 발언을 통한 과학과 종교와의 갈등의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이는 특히, 새로운 무신론자 New Atheist에서 찾을 수 있다)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수용하기를 거부한다. 더 나아가 정통기독교에서 인정하지 않는 텍스트를 수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동등한 위치에 놓거나 그 높다 더 권위를 부여하려고 한다. 심지어는 타종교의 텍스트를 끌어 들어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든다.(비교종교학자의 경우에 그러한 경향이 더욱 나타난다.)

16) 그렇다면 왜 이들은 ‘손가락 없애기 전술’을 사용하는 것일까? 길희성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종교가 적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나 실재에 대해 말하고 있는 한, 그리고 성인의 말씀이나 경전의 초월적 권위를 주장하는 한, 종교적 가르침과 세속적 지성 사이의 괴리와 갈등은 피할 수 없다.”(길희성, 2013: 138). 단지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없앤다는 말인가? 고(故) 존 스토틀 박사가 자신의 책의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예수님은 ‘변론자 그리스도’(Christ the Controversialist)이셨다는 것을 기억하자.

1) 성경의 권위 무너뜨리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 비판가들은 극단적으로 매우 잘못된 성경해석을 인용합니다. 특히 어디에서 그러한 자료들을 그렇게도 용케도 잘 찾아서 인용한지 그들의 노력에만큼은 찬사를 보내야 할 정도다(?). 특히 최근에 9/11 사태 이후, 에이즈·동성애와 관련된 미국의 극단주의적 근본주의자(극단적 문자주의자)들의 성경해석, 텔레비전전도자들(televangelists)의 탐욕에 의한 성경해석¹⁷⁾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과거 과학과 반대되는 해석 또한 정통기독교 비판가들에 의해서 성경의 권리를 무너뜨리는 단골 메뉴로 사용되어 인용되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 잘못된 극단적 성경해석 인용하기

일부 극단적으로 잘못된 성경해석을 하고 있는 잘못된 과거 사례를 근거로 하여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과거에 목사였다가 현재에는 무신론자로 활동하고 있는 댄 바커(Dan Barker)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성경구절들은 미국 시민전쟁에서 많은 교회에 의해 인용되었고,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 네덜란드 개혁신교회에서 몇몇 신학자들에 의해 이용되었다.”(Barker, 2011: 352). 히친스도 노예제도에 대한 근거와 합리화를 성경을 근거로 내세웠다는 점을 지적한다. “모든 종류의 기독교 설교자들은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노예제도를 합리화했으며, 심지어 남북전쟁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노아의 세 아들(셈, 함, 야벳) 중 함이 저주를 받아 노예 신세가 되었다는 성경 내용을 근거로 내세웠다.”(Hitchens, 2008: 246). 해리스는 구체적으로 당시 노예제의 합리화의 근거를 주장한 당시 주장을 인용합니다. “... 1845년에 리처드 풀러 목사는 ‘신이 구약에서 인가하고, 신약에서 허용한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Harris, 2008: 36). 스텐저도 노예제도의 합법화를 위해 당시 성경이 어떻게 인용되었는지 구체적인 예를 열거하여 보여주고 있다.

침례교 지도자이자 노예 소유주였던 리처드 퍼먼이 주춧돌을 쌓은 성경 논증은 나중에 남북전쟁에 이를 때까지 노예제도를 뒷받침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침례교 총회의 회장을 역임하는 동안 퍼먼은 주지사에게 편지를 썼다. ‘노예제도를 가질 권리는 성경에, 가르침으로 보나 실제로 보나 분명하게 확립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저명한 성직자 알렉산더 캠벨은 이렇게 썼다. ‘성경에 노예제도를 금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지만, 그것을 규정하는 말은 많다. 그렇다면 그것은 부도덕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린다.’ 남부 연방의 대통령 제퍼슨 데이비스는 성경 말씀을 따르라고 주장했다. ‘(노예제도는) 전능한 신의 의사로 세워진 것이다. 그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인가된다.’”(Stenger, 2010: 252).

17) 그러한 예로는 “오랄 로버츠(Oral Roberts)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기부금을 많이 거두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로버트 톨턴(Robert Tilton)은 기부금을 보내는 선거구민들에게 하나님에게서 받은 특별한 계시를 편지에 적어서 보내 주겠다고 약속했다.”(Sproul, in Kistler ed., 2011: 110).

다음은 고 크리스토퍼 히친스가 지적한 9/11 테러와 관련된 종교지도자들의 성경해석에 대한 히친스의 지적입니다.

[9.11]사건이 일어난 지 몇 시간도 안 돼서 팻 로버트슨(Pat Robertson) ‘목사’와 제리 폴웰(Jerry Falwell) ‘목사’는 동성애와 낙태를 목인한 세속적인 사회에 신이 심판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희생자들은 위해 워싱턴의 아름다운 내셔널 교회에서 엄숙하게 치러진 추모 예배에서는 기회주의적이고 반유대주의적인 행동 때문에 나라에 작으나마 수치를 안겨준 빌리 그레이엄(Billy Graham)이 연단에 설 기회를 허락받았다. 그는 사망자들이 모두 낙원에 있으므로, 이승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해도 돌아오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했다(Hitchen, 2008: 55).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는 ‘하느님께서 미국에 축복을 내려주소서’ 하는 말을 계속했다. … 오래 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왔던 조지 맥거번(George McGovern)이 최근 『네이션』(The Nation)지에 기고한 글이 있다. ‘부시가 하느님의 지시로 이라크를 침공하기로 했다면, 교황이나 대부분의 개신교회 지도자나 랍비들에게 전쟁은 옳지 못하다고 말씀하신 그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같은 하느님이시라면 그 하느님은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른 기별을 주는 분이신가’라는 질문을 던졌다.”(오강남, 2008: 43-44).

(2) 과학과 상반되는 과거 성경해석 인용하기

오늘날 과학적 사실과 반대되는 과거 성경적 해석을 인용하면서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린다. 더 나아가서는 과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함으로써 성경을 ‘신화’(myth)에 불과하다는 결론에까지 도달하기도 한다. 신문배달부가 신문 사이에 찌라시(chirashi, ちらし[散らし])를 넣은 것과 같은 기술(記述)의 방법을 사용하면서 말이다.

오강남 교수는 엷서 감독의 창세기 계산법의 잘못됨을 지적하고 있다. “17세기 제임스 엷서(James Ussher)라는 아일랜드 신부가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그 자손들의 생존연대를 전부 계산해서 아담이 흠으로 빚어진 것이(생년월일이 아니라 ‘조성일?’이) 기원전 4004년이라 주장하고, 그것이 오랫동안 가톨릭교회의 공식 교리로 채택되어 왔는데, 아직도 그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섭섭한 일이지만, 더 이상 공식적인 교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한술 더 떠서 영국의 성 캐더린 대학 학장인 존 라이트푸트(John Lightfoot) 박사는 그것이 정확하게 10월 23일 오전 9시 정각이었다고 공표했다.”¹⁸⁾(오강남, 2005: 73). 계속해서 다음을 인용함으로써 성경이 과학과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옛날 독실한 그리스도인은 남자의 경우 여자보다 갈빗대 하나가 적을 것이라 믿었다. 1543년 현대 해부학의 창시자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A. Vesalius)가 ‘대답하게’ 남녀 공히 같은 숫자의 갈빗대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공포하자 많은 기독교인은 그를 두고 성경을 믿지 않

18) 물론 오늘날에도 젊은 지구 창조론자(Young Earth Creationism)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한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윤철민(2013)을 참조하라. 윤철민 목사는 “결보기 문자적 해석을 추구하는 창조과학 vs. 속보기 문자적 해석을 추구하는 개혁주의”이라는 프레임을 전개하고 있다.(2013: 89 참조).

는 사람이라고 공박했다.”(오강남, 2005: 79)¹⁹⁾

뛰니뛰니해도 오늘과 과학과 상반된 해석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地動說)에 대한 당시 마틴 루터와 멜랑히톤의 견해가 단골 메뉴입니다.(멜랑히톤보다는 루터의 견해는 특히 과학에 기반을 한 새로운 무신론자들에 의해서 자주 인용되고 있다. 루터와 멜랑히톤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며, 신중하지 못한 해석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20)·21)}

루터는 코페르니쿠스를 “천문계에 뜨는 셋별”이라고 칭하면서도 동시에 “천문학계의 흐름에 역행하는 바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태양이 멈추도록 명령한 여호수아를 모르는가”라고 반문합니다. 다른 종교개혁가 멜랑히톤의 비판은 더욱 날카롭습니다. “우리의 눈은 태양이 24시간을 주기로 지구를 들고 있음을 증거한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호기심이 지나쳐, 혹은 자신의 천체성을 뺏내기 위해 지구가 움직인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그런 견해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고, 기존 정서를 해치는 것이다. 그런 행위는 해롭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좋은 지성의 사명이다.”(김구원, 2013: 415 재인용)

전술한 ‘과학과 상반되는 과거 성경해석 인용하기’는 상대적으로 ‘과학’에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과학이라는 권위를 내세워서 성경을 신화적인 차원에서 읽기를 시도한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새로운 무신론자의 좌장격인 도킨스(Richard Dawkins)다.(물론 과학 분야가 아닌 곳에서는 이국진 목사님이 지적하듯이 ‘유사동일 논증의 오류’(parallelomania)에 빠져서 기독교를 신화의 차원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이들은 바로 티모시 프리크와 피터 갠디(Timothy Freke and Peter Gandy)에게서도 찾을 수 있다.(이국진, 2011: 58; Freke & Gandy, 2009a 참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2) 다른 텍스트에 권위 부여하기”의 “(2) 타종교 문서에 권위 부여하기”에서 살펴볼 것이다.

19) 레이가 자신의 책에 쓴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여담이지만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음경에 음경뼈(baculum)라고 불리는 뼈가 들어 있는 동물이 많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음경뼈를 가진 동물이 많은 반면 인간에게는 그런 뼈가 없다는 사실을 고대인들이 알아차렸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신이 아담에게서 떼어간 것이 갈비뼈가 아니라 음경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남녀의 갈비뼈 숫자가 똑같기 때문이다.”(Ray, 2013: 135 각주).

20) 루터와 멜랑히톤은 문자적으로 잘못된 성경해석을 했던 것은 사실이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루터와 멜랑히톤의 해석의 잘못된 것이지,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전도서1장 5절과 같이 당시 천동설의 근거로 인용되는 구절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김구원 교수의 책(2013: 414-420, “켄톤 스팅스의 ‘적응’ 개념”) 참조.

21) 바젤 대학에서 바르트의 연구실 건너편 방을 사용했던 칼 야스퍼스(Karl Jaspers, 1883-1969)는 볼트만의 지속적인 논쟁에 가담했던 최초의 철학자였다. 그는 이렇게 질문한다. “지구가 태양을 회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서 명백한 해돋이의 광휘 앞에서 느끼는 신비를 거부해야 하는가? … 시내 산에서와 불타는 가시덤불 속에서의 신성의 출현이 우리가 문제의 현상을 시간과 공간에 의하여 인간의 경험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하여, 준열한 실제적 체험인 것을 부정해야 하는가? 비신화시키는 것은 인간 이성의 본질적인 능력과 관계를 끊는 것이다.”(Harrisville & Sundberg, 2002: 340 재인용).

도킨스는 ‘really’ 또는 ‘reality’라는 단어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기독교가 신화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을 많은 할애하여 주장하는 것을 그의 저서인 『현실, 그 가슴 뛰는 마법』(The Magic of Reality: How we know what’s really true)에서 확인할 수 있다(Dawkins, 2012)(개인적으로 이 책이 도킨스가 어린이들을 상대로 저술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긴장된다) 이 책에서 도킨스는 신화와 과학을 대조하면서 글쓰기를 전개한다. 도킨스는 절묘하게 신화의 범주에 성경(의 내용)을 삽입하고, 과학의 범주에 진화론을 교묘히 집어넣으므로 진화론은 really(or real)한 과학이고, 성경은 신화에 불과하다는 점을 암묵적으로 주장한다. 1장 What is reality? What is magic? 과학은 현실이고, 초자연적인 것은 마법에 해당하다고 주장한다. 한 복잡한 유기체를 다른 복잡한 유기체로 (동화에서처럼) 단번에 바꾸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 가능성의 영역을 넘어서지만, 복잡한 유기체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설명하면서 마법처럼 보이는 현실의 존재를 자연선택적 진화론과 관계를 통해 설명한다. 호박→마차→개구리→왕자로 바뀌지 않지만(이처럼 바뀌는 것은 마법이다).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는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것이다(이렇게 바뀌는 것은 reality인 것이다). 7장. What is a rainbow?에서는 성경의 노아의 방주(方舟) 이야기는 수메르 신화인 길가메시 서사시의 다른 버전 즉 우트나피쉬티라는 노인을 단지 노아로 바꾸어서 다시 읊은 것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그렇게 함으로써 노아의 무지개 언약은 신화의 내용으로 치부되게 한다) 그리고 The real magic of the rainbow에서는 무지개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기술한다. 8장에서는 When and How did everything begin? 창조신화에 대해서 언급한다. 그런 후 How did everything begin really?에서 과학적 설명을 추가한다. 9장 Are we alone?에서는 ‘천국의 문’(Heaven’s Gate)과 같은 잘못된 믿음을 지적하면서, Is there really life on other planets?라고 묻고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있는 ‘골디락스 지대’와 같은 과학적 설명을 덧붙여서 기술한다. 12장 What is a miracle?에서는 오늘의 기적에 해당하는 것이 내일에는 실현가능한 기술(技術)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오늘날 최고의 과학자들조차 설명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초자연적인 설명’을 끌어들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기술한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새로운 무신론자는 종교(특히 기독교)의 가치를 신화화함으로써 그 가치를 평가절하 한다.(강상우, 2013 재인용). 그 이전에도 도킨스는 “우리는 지금까지 자연선택 이론에 대해 제기된 여러 가지 대체 이론들을 다루어 왔다. 그런데 아직 가장 오래된 이론이 남아 있다. 그것은 의식을 가진 설계자가 생명을 창조했다거나 또는 그 진화를 이루었다는 주장이다. 이 이론 속에 들어 있는 특정한 관점, 예를 들어 「창세기」 속에 적혀 있는 한 가지 이론(혹은 두 가지 이론일지도 모르지만)을 분쇄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 거의 모든 민족들이 저마다의 창조 신화를 발달시켜 왔으며 「창세기」의 신화는 중동지방 유목민의 특정 부족들 사이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았다. 그것은 세계가 개미의 배설물에서 창조되었다는 서아프리카 지방의 한 부족의 신앙과 별반 다를 바 없다. 이 신화들은 모든 어떤 종류의 초자연적인 존재의 사려 깊은 의도에 기대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Dawkins, 2004: 509)고 말하기도 했다.(강상우, 2013 재인용).

2) 다른 텍스트에 권위 부여하기

“손을 없애기” 진술의 변형된 형태는 바로 “물 타기”다. 기존의 텍스트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다른 텍스트에 상대적인 권위를 부여하거나 더 높은 권위를 부여하여 손이 보이지 않게(정통기독교

텍스트가 무기력하게) 하는 전술이다. 앞에서 디팩 초프라(Deepak Chopra)의 사례(Chopra, 2009; 2013 참조)에서도 보았듯이, 다른 텍스트를 혼합함으로써 정통기독교 텍스트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 즉 전혀 다른 예수와 전혀 다른 영성을 창출하게 된다. 이는 전통기독교와는 거리가 먼 예수와 영성에 불과하다.

(1) 정경 외의 기독교문서에 권위 부여하기

정통기독교의 정경 외에 권위를 부여하는 대표적인 문서는 바로 영지주의 문서다. 영지주의자라든가, 영지주의에 대한 전문가들조차도 영지주의가 정통기독교와는 전혀 다른(거리가 매우 먼) 가르침이라는 것을 인정한다.(Pagels, 2006; Hoefler, 2006; 세르즈 위탱[Serge Hutin], 1996 참조[Pagels는 대학교수로 영지주의 전문가이고, Hoefler는 실제로 영지주의 사제로 박사학위 소유자다]). 영지주의 문서로 대표되는 나그함마디 문고(Nag Hammadi Library)를 살펴보더라도 이 영지주의 문서가 정통기독교의 가르침과는 전혀 무관(無關)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Pagels, 2006). 심지어 불교학자인 에드워드 콘즈(Edward Conze)에 의하면 영지주의는 불교 특히 대승불교와 공유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지적하기도 하였다(Hoeller, 2006: 228-229 재인용).²²⁾

- * 구원은 그노시스(즈나나)를 통해 얻어진다.
- * 무지가 악의 진짜 뿌리이다.
- * 영지주의자의 지식과 불교인의 지식은 평상의 방편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적 계시의 결과로서 얻어진다.
- * 어리석은 물질주의자(hyletic)의 상태에서부터 깨달음(pneumatic, 영적인) 현자의 상태에까지 이르는 영적 성숙의 단계가 있다.
- * 영지주의와 불교에서는 지혜의 여성적 원리(각각 소피아와 파라즈나prajna)가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 * 영지주의와 불교는 사실보다 신화를 선호한다.
- * 도덕률 폐기론 경향(규율과 계명에 대한 경시)이 두 종교 체계 속에 내재해 있다.
- * 두 종교 체계는 값싼 대중성을 혐오한다. 이들의 가르침은 영적 엘리트를 목표로 한다.
- * 영지주의와 불교는 모두 형이상학적인 이원론을 취한다.(Hoeller, 2006: 228-229 재인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자들은 도마복음 등의 기록 연대가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보다 앞서고 마가복음의 초기 형태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Evans, 2011: 81) 그리고 그와 같은 전제와 가정 하에 예

22) 오강남 교수가 들려준 이야기를 참고하면 도마복음이 얼마나 선불교(禪佛敎)에 가까운지 알 수 있다. “한 가지 예로 미국인 리처드 베이커(Richard Baker)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는 젊은 시절 보스턴에서 일본 교토(京都)로 건너가 선사 스즈키 순류(鈴木俊隆) 밑에서 선수행을 하고 선사(禪師)가 되어 샌프란시스코 선원(禪院)의 주지가 되었는데, 하루는 『도마복음』을 전문으로 하는 프린스턴 대학교 일레인 페이지 교수와 이야기하게 되었다. 대화를 나누던 그는 어느 순간 ‘제가 『도마복음』을 미리 알았더라면 구태여 불자가 되어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했다. 『도마복음』의 가르침이 선불교의 그것과 너무나 닮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이런 가르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한두 세대 전에만 해도 알 길이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다.”(오강남, 2009: 136 인용).

수 세미나(Jesus Seminar) 등과 같은 집단에서는 도마복음을 다섯 번째 복음(The Five Gospels)이라고 단정하고 이를 근거로 해서 역사적 예수를 재구성하려고 하였다. “(이 저작들의 초기 연대와 가설적 초기 형태들이 적절하다면) 일부 학자들이 역사적 예수를 재구성하는 데 이 정경 밖의 자료들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 세미나는 그 자료를 사용해 예수가 진짜로 했을 말씀을 『다섯 번째 복음서』(The Five Gospels: The Search for the Authentic Words of Jesus)라는 책에 담았다. 여기서 ‘다섯 번째 복음’이란 도마복음을 말한다.”(Evans, 2011: 81). 즉 정경 이외의 초기 기독교문서에 정경적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모두 정통텍스트를 붕괴시키기 위한 ‘손가락 없애기’ 전술인 것이다.

(2) 타종교 문서에 권위 부여하기

타종교의 문서에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정통텍스트의 정경적 권위를 약화시키는 경우로는 여러 학자들에게서 만날 수 있다.²³⁾ 오쇼 라즈니쉬(Osho Rajneesh)는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해를 힌두교의 ‘두 번째 탄생’을 의미하는 “드위즈”(dwij)에서 가져와서 동정녀 탄생에 대한 정통텍스트를 흔들기 시작한다.

힌두교에서는 이 단계를 ‘두번째 탄생’ 드위즈(dwij)라고 불렀다. 그대는 다시 한 번 태어난다. 그러나 이것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탄생이다. 이것은 그대 자신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두 육체의 만남, 이원성으로부터의 탄생을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통한 탄생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탄생-동정녀로부터 태어난 것-의 의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놓쳐버린다. ‘동정녀로부터’라는 말은 ‘하나로부터’라는 뜻이다. 거기에 타인이 없다.(Rajneesh, 1997: 221).

그리스도에 대한 라즈니쉬의 해석이다. “크라이스트(Christ)라는 단어는 ‘크리슈나’(Krishna)라는 단어의 한 형태라는 것이다. 그것은 가능한 이야기이다. 인도의 벵갈 지방에서 ‘크리슈나’는 아직도 ‘크리스토’(Kristo)라고 불리고 있다. 왜냐하면 ‘크리슈나’는 사람 이름이 아니기 때문이다. ‘크리슈나’는 그의 완전한 성취를 의미한다. 그것은 ‘붓다’(Buddha)와 같다. ‘붓다’는 이름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도달하는 완전한 성취를 말한다. 붓다는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크리슈나’는 무슨 뜻인가? 그것은 세계의 중심이 된 사람이라는 뜻이다. 크리슈나는 자식의 중심, 끌어당기는 사람, 모든 존재의 중심이 된 사람을 뜻한다. 그리스도란 말도 똑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Najneesh, 1997: 448)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오쇼 라즈니쉬는 “그것은 이런 뜻이다.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없다면 어떻게 가장 높은 분을 만날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그대가 아들을 만난다면 아버지를 만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아들은 대리인이기 때문이다.

23) 간디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기독교의 신상수훈과 『바가바드기타』의 가르침 사이에 아무런 차이도 발견하지 못했다. 산상수훈이 예수 식으로 표현한 것을 『기타』는 학문적 형식을 빌려 나타낸 것일 뿐이다. 『기타』는 치밀한 사고를 통해 사랑의 법칙을 밝히고 있으며 나의 용어를 쓰면 자기포기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간디, 『간디문집』)(박영호, 2007: 371 재인용).

아바타(avatars) 붓다, 티르탄카라(tirthankaras), 이들은 모두 대리인이다. 그들은 최고의 존재로부터 온 빛이다. 그대가 그들을 만날 수 없다면, 그대가 그들과 함께 살 수 없다면, 그대의 예고가 그들이 그대와 함께 존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진리를 만날 가능성은 없다”(Rajneesh, 1997: 615).

초프라(Deepak Chopra)는 『제3의 예수』에서 예수의 지혜를 직접적으로 탐색해 들어가기 위한 10가지 주제²⁴⁾들 중 8번째 “카르마-뿌리고 거두기”(Chopra, 2009: 150-159)와 9번째 “환영일뿐인 세상”(Chopra, 2009: 160-168)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성경에서 그 근거를 끄집어내는 것을 볼 수 있다. “... 카르마와 환영으로서의 세계는 기독교인에겐 조금 낯설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예수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통해 카르마라는 화제를 끌어냈다. ‘너희가 뿌린 대로 거두리라’ 또한 그는 ‘세상에 거하되 세상에 속하지는 말라!’고 함으로써 이 세상이 환영임을 암시했다. 예수가 사람들이 깨닫는 것 이상으로 깊이 들어간 이 구절들은 낯설지 않다. 예수는 산스크리트어 ‘카르마’(karma)라는 단어를 상요하지 않았지만 그의 견해에 카르마의 주제를 이미 사용했다는 많은 증거들이 있다.”(Chopra, 2009: 80).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와의 ‘유사동일 논증의 오류’(parallelomania)를 통해서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같은 위치에 놓이게끔 하기도 한다. 특히 그리스·로마 신화, 이집트 신화나 다른 근동신화와의 유사성(실질적으로는 질적으로 다른)을 지닌 자료를 통해 기독교를 신화화하려고 한다. 이에 대표적인 연구자들이 바로 티모시 프리크와 피터 갠디(Timothy Freke and Peter Gandy)다. “악마의 모방”(Freke and Gandy, 2009a: 96-99)에서 저자들은 예수님과 신화속의 신들인 오시리스(Osiris)-디오니소스를 비교한다. 그들이 제시하는 예들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예수는 인류의 구원자이며, 인간이 된 신이고, 하느님의 아들이며 아버지와 동격인데, 오시리스(Osiris)-디오니소스 또한 그렇다.”, “예수는 인간 처녀에게서 태어나고, 그의 어머니는 사후에 하늘로 올라가 신적 존재로 추앙되는데, 오시리스-디오니소스의 경우 또한 그렇다.”, “예수는 12월 25일 혹은 1월 6일에 태어나는데, 오시리스-디오니소스 또한 그렇다.” 한 마디로 이들 저자들이 이러한 공통점에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비슷한 것 보니까. 틀림없이 예수는 신화에 불과하다고 말이다.

예수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실존한 메시아의 전기가 아니라, 이교도의 여러 유사 깊은 이야기를 토대로 한 하나의 신화라고 우리는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스도교는 새롭고 유일무이한 계시 종교였던 것이 아니라, 실은 고대 이교도의 미스테리아의 신앙을 유대인 방식으로 각색한 것이었다. 이런 주장을 우리는 ‘예수 미스테리아 명제’(The Jesus Mysteries Thesis)라고 명명했다.(Freke and Gandy, 2009a: 10-11)

예수 이야기는 신화의 전형적인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근거는 매우 명백하다. 이 이야기는 신화다. 실제로 이 이야기는 신화일 뿐만 아니라 이교도 신화의 유대적 버전이다.(Freke and Gandy,

24) 디팩 초프라가 제시한 10가지 중심 주제란 다음과 같다. 1)사랑과 은총, 2)믿음, 3)계시와 구원, 4)예수와 자아, 5)명상, 6)묵상, 7)기도, 8) 카르마-뿌리고 거두기, 9)환영 일뿐인 세상, 10)합일이다.

2009b: 101).

프레케와 갠디(Freke & Gandy)의 주장은 바로 정통텍스트를 신화와 동일시하는 ‘손가락 없애기’ 전술의 일환으로 손가락 없애기 전술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오강남의 책 『예수는 없다』의 “단군신화와 기독교”(오강남, 2005: 95-98)나, 지윤민이 자신의 책 『기독교의 거짓말: 교회가 가르쳐주지 않는 기독교의 불편한 진실』의 “2부. 꼼꼼하게 보는 구약성경”(지윤민, 2012: 119-170)에서 “3부, 꼼꼼하게 보는 신약성경”(지윤민, 2012: 171-244)에서 저가 자신이 밝힌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써가 아니라 삼국지를 읽는 것처럼 읽어야 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적 전술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 “어두운 하늘 맹목적 쳐다보기” 전술

“손가락 없애기”의 전술은 곧 바로 “어두운 하늘 맹목적 쳐다보기” 전술로 이어집니다. 기독교 정통 텍스트인 성경의 정경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곧 바로 캄캄한 하늘을 통해서 본 신(절대자, 궁극적 실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강남은 『예수는 없다』에서 “III. 잘못된 신관”을 얘기하는 것이다.(오강남, 2005: 117-182). 캄캄한 하늘에서 본 신(Reality와 같은, Ground of Being 등으로 불리는)이 진정한 신이라고 단정하고는 곧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신(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오강남 교수의 “부족신관”(오강남, 2005: 134-144), “율법주의적 신관”(오강남, 2005: 145-151)에 대한 기술이 바로 정통기독교 신관에 대한 비판에 해당합니다. 출애굽 이야기를 통해 성경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밖에 모르는 편협한 사고를 가진 신으로, 가난한 정복 이야기를 통해 잔인하신 하나님으로, 제사장 제도를 통해 장애자를 차별하는 하나님으로 기술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심층적인 기술도 없이 말입니다. 율법주의 신관(오강남, 2005: 145-151)에서는 율법주의적 믿음과 삶을 비판합니다.(이러한 오강남 교수의 태도는 자신들이 앞에서 그토록 비난했던 극단적 형태를 띤 문자주의와 같은 맥락을 가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강남 교수는 손가락 없이 어두운 하늘을 맹목적으로 쳐다보면서 발견한 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 어두운 하늘에서 실체 쳐다보기

오강남 교수가 “어느 신학자의 신관”(오강남, 2005: 167-182)에서 기술하고 있는 머커스 J. 보그(Marcus J. Borg)의 신관이 바로 그것입니다. 머커스 보그의 신관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성숙한 사람(?)의 신관 또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뒷 부분에서는 칼 라너(Karl Rahner)의 제자인 닷터(Paul K. Knitter)의 다원주의로의 신앙의 변화를 소개합니다.(오강남, 2005: 255-264). “처음 그가 가졌던 ‘배타주의’(exclusivism)에서 칼 라너(Karl Rahner)의 ‘포용주의’(inclusivism)로 넘어 갔다가 마지막으로 ‘다원주의’(Pluralism)에 귀착된 것이다.(오강남, 2005: 260). 길희성 교수는 존 히크(John Hick)의 신관의 변화에 대한 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히크에 의하면, 유구한 전통을 지닌 세계 굴지의 종교들은 인간의 유한성에서 오는 불가피한 진리 인식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각기 자기 방식으로 신 혹은 실재를 인식하고 구원을 경험한다. 히크는 궁극적 실재를 가리키는 말로

서 초기에는 ‘하느님’(God)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느님 중심적’ 종교다원주의를 주창했으나, 나중에는 ‘하느님’이라는 말이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처럼 유일신 신앙의 종교에 편향된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하느님 대신 ‘실재’(Reality[대문자 ‘R’에 주목])라는 철학적 개념을 사용하여 ‘실재 중심’의 종교다원주의를 펴게 되었다.”(길희성, 2013: 162-163) 한 마디로 말해 신관이 “존 혁의 종교다원주의론”(길희성, 2013: 162-164)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²⁵⁾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없는 것은 손가락 없이 즉 정통기독교 텍스트 없이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신은 성경의 말하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아니라,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신 밖에 없다는 것을 없다는 것입니다. 즉 왜 정통기독교 비판가들이 그렇게도 ‘손가락을 없애기’ 전술에 전력을 다하였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텍스트에 대해서 그렇게도 올인 하였던 것입니다. 정통텍스트 없이 발견할 수 있는 신은 신(God)이 아니라 다른 신(other god[s])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2) 어두운 하늘에서 역사적 예수 쳐다보기

정통기독교 텍스트 없이 킁킁한 하늘을 쳐다봄으로써 발견할 수 있는 신은 정통기독교 신이 아니라 종교다원주의적 신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의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신성의 부인(否認)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캄캄한 하늘에서 발견한 신은 종교다원주의적 신에 가깝기 때문에 캄캄한 하늘을 쳐다보고 발견한 신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는 발견할 수 없고 다만 인간 예수만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닌 인간 예수님만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성부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구원자로서의 예수님, Jesus as rescuer)는 사라지게 된다. 오강남 교수가 “IV. 예수는 없다”(오강남, 2005: 183-248)에서 하고자 했던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신가?”(오강남, 2005: 185-188)이라고 반문하였던 것이다.

예수님은 신(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인간(역사적 예수)에 불과하게 된다. 초프라(Chopra)는 “진짜 예수는 누구인가?”(Chopra, 2009: 180 이하)²⁶⁾라는 질문은 한 후에 자신은 “5. 신-의식을 믿는

25) 참고로 존 혁의 예수관을 보라. 얼마나 우리와 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대표적인 다원주의 신학자 존 혁(John Hick)도 성육신을 세상 속에 보편적으로 내재하는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간 안에 임재하는 특별한 사례로 이해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예수 안에 있는 신의식은 너무도 강렬하고 압도적인 것이어서 예수를 접촉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임재의식의 중재자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인격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본래 인간인데 하나님의 충만한 내주하심이 그를 신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예수는 단지 신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능적 신성’(functional Diety)만을 가진 셈이다.”(박영돈, 2011: 121 재인용).

26) 실제로 존재한 예수에 대한 주장을 디팩 초프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문자주의자의 주장: 진짜 예수는 복음서 안에 있다. 따라서 그 이상 더 찾아볼 필요가 없다.; 2. 합리주의자의 주장: 예수에 관한 사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소멸되었다. 사복음서들도 실제로 조제했던 사람에 대한 증거로 믿을 만하지 않다.; 3. 신비주의자의 주장: 진짜 예수는 결코 물리적이 아니고 신성한 영적 존

자들의 주장”을 확고히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한다. 즉 “예수는 신-의식의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의 의식 속에 존재한다”(Chopra, 2009: 181-182)고 믿는다는 것이다. “나는 이 주장[저자 자신이 지지하고 있는 ‘신-의식을 믿는 자들의 주장’을 가리킴]의 결점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동조한다. 신실한 기독교인은 메시아를 붓다나 인도의 베다 현자 성인들 같이 깨달은 사람 중의 하나로 보는 견해에 확실히 반대할 것이다(가톨릭주의는 ‘붓다 같은 예수’를 교리에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반대한다. 기독교 바깥의 모든 신앙은 우상이라는 신념을 넘어서지 못한다)”(Chopra, 2009: 193). 누가복음 21장 34-36에 대한 초프라의 해석에서도 볼 수 있다. “나는 이 구절[눅21:34-36]을 통해 예수가 제자들에게 일상 속에서 영혼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믿는다. 즉 그들 자신의 성장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다. ‘언제나 정신 차리고’의 의미는 자각하라는 뜻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깨어 있는 마음’(mindfulness)이라고 한다. 이것이 함축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수의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내가 진실로 누구인지 기억하라. 하나님처럼 살아라.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기도하라. 이는 기도가 영적이 중요성을 늘 일깨워주는 수단임을 알려준다.”(Chopra, 2009: 145). 한 마디로 말해서 타종교의 성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깨달은 사람 중의 하나”로 본다는 것이다. 박영호 선생도 “예수는 영원한 생명인 얼나(soul)를 깨달으라는 ‘깨달음신앙’을 가르쳤다.”(박영호, 2009: 6)고 한다. 오강남 교수(2005: “성불(成佛)하신 예수님” 223-234; “다석(多夕) 류영모(柳永模) 선생의 예수님” 234-239; “함석헌 선생님과 간디 옹과 탁날한 스님의 예수님” 239-243; “참다운 길벗” 243-248.)도 같은 인간 예수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인간 예수에 대한 이해는 “역사적 예수 연구”로 나타난다. 예수회 성서신학자 헤링턴(Daniel J. Herrington)의 논문 “The Jewishness of Jesus,”에 의하면 예수에 대한 묘사로 대표적인 것이 다음과 같다고 한다.((오강남, 2005: 212 재인용)

- 1)성전과 유대인의 생활방식을 개혁하려고 한 종말론적 예언자(E. P. Sanders).
- 2)열십당에 속하는 혁명가(S. G. Brandon).
- 3)기성 종교를 방해한 마술가(Morton Smith).
- 4)삼마이 파 바리세인에 대항하던 힐렐 학파에 속하는 바리세인(Harvey Falk).
- 5)갈릴리 지방의 카리스마 지도자(Geza Vermes).
- 6)토라를 가르친 랍비(Bruce D. Chilton) 등이 그것이다.

어떻게 다양한 역사적 예수가 나올 수 있을까? 정경과 무관한 역사적 예수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존슨(Luke Timothy Johnson)이 지적한 역사적 예수에 대한 저서들이 지닌 특징 때문에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Johnson, 2003: 84-85).

- 1)눈에 떨 정도로 이들 저서에서는 예수를 알기 위한 믿을 만한 자료로서 정경 복음서의 가치를 거부

제다.; 4. 회의주의자의 주장: 예수는 없다. 그는 신학적 상상력의 가공인물이다.; 5. 신-의식을 믿는 자들의 주장: 예수는 신-의식의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의 의식 속에 존재한다.(Chopra, 2009: 181-182).

한다.

2)같은 정도로 이들 저서에는 예수의 모습이나 기독교 기원을 설명하는 데 정경에 있는 다른 자료들을 언급하지 않는다.

3)예수의 선교나 예수운동이 종교적 혹은 영적 실재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사회적 혹은 문화비평적 관점에서 묘사된다.

4)비로 이 저서들 모두가 ‘역사적 예수’를 탐색하고 그에게 위임했다고 주장하지만, 마찬가지로 그들 모두는 어떤 신학적 예정안을 갖고 있다.

하여튼 간에 손가락이 없이 어두운 하늘에서 쳐다보고 찾을 신에서부터 찾을 수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가 아닌 인간이신 예수에 불과하다. 정경이 없는 어두운 하늘에서는 오직 인간인 다양한 역사적 예수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정통기독교 비판가들은 예수님의 하나님되심을 방해하기 위해서 “어두운 하늘 맹목적 쳐다보기” 전술을 구사하여 온 것이다. 이제 예수님은 위조된 예수에 불과하게 된 것이다. 에반스(Craig A. Evans)가 자신의 책 제목으로 사용하였던 “위조된 예수”(Fabricating Jesus, 한국어 번역본 제목은 『만들어진 예수: 누가 예수를 왜곡하는가』 다)(Evans, 2011).

연구자들에 따라서 얼마나 다양한 위조된 예수가 나올 수 있는지에 다음을 참고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오쇼 라즈니쉬(Osho Rajneesh)는 예수님이 인도에 왔다고 한다. “예수란 존재는 이 삼십 년 동안 끊임없는 준비를 거친 후에야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처음에 이집트에 갔었고 그 다음에는 인도에 왔었다. 이집트에서 그는 비법의 가장 오래된 전통들 중의 하나를 배웠고, 인도에서는 붓다와 베다, 그리고 우파니샤드의 가르침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오랜 준비를 거쳤다. 그러나 그 준비 기간은 알려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수는 그동안 이런 학파들 속에서 이름 없는 제자로 배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의도적으로 그런 기록들을 삭제하였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다른 사람의 제자였었다는 사실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가 준비하고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을 굴욕적인 것으로 생각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하느님의 아들은 완전히 준비된 채로 와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완전히 준비된 채로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만일 누군가가 완전히 준비되어 있다면 그는 올 수 없다.”(Rajneesh, 1997: 435-436). 그와 반대로 박영호 선생은 예수님이 인도에 왔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말한다. “옛 성경 사본에 한자인 임금 제(帝) 자가 쓰여 있는 것이 요즘 발견되었다. 제(帝)자는 본디 하느님(上帝)을 뜻하는 글자였다. 진시황 때에 세상의 임금을 호칭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옛날에도 문화의 교류가 활발하였는지도 모르는 일인 것이다. 그러나 예수가 인도까지 와서 수행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예수가 석가를 알았다면 아는 것을 숨길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박영호, 2000: 50).

(1) 예수 폐위시키기(Dethroning Jesus)

“어두운 하늘에서 역사적 예수 쳐다보기” 즉 정경이 없는 가운데 어두운 하늘에서 찾을 수 있는 예수는 인간 예수 즉 역사적 예수와 불과하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폐위와 연결되어 진다.

기독교(Christianity)와 예수주의(Jesuanity)를 구분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분은 결과론적으로 성부 하나님 옆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써 앓을 보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예수주의(Jesuanity)는 예수를 달리 보는 또 다른 이야기를 가리키는 말로 신조어다. 예수주의에서도 이야기의 중심은 역시 예수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는 종교적 지혜를 지닌 선지자이거나 선생이다. 예수주의에서 예수는 지금도 나사렛 예수로 남아 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일러 주고 사람들을 인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게 한다. 예수는 주로 선생과 인도자와 모범 역할을 한다. 예수가 누리는 특별한 지위는 인간의 상태를 꿰뚫어 보는 그의 통찰, 그리고 그가 그 상태를 깨우쳐 준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 옆에는 예수가 앓을 보좌가 없으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이 지닌 영향력이 존재할 뿐이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기는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보좌는 없다는 것이다. 그는 많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렇지만 어쩌면 그 많은 이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 배우고 따를 만한 사람일 수도 있다.”(Bock & Wallace, 2012: 18-19).

예수에 대한 교리를 받아들이는 “예수에 대한 믿음”(faith in Jesus)이 아니라, 예수가 지니고 있던 그런 믿음, ‘예수의 믿음’(faith of Jesus)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오강남, 2011: 486; 오강남 2005: 192-196.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 참조).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폐위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예수님은 인간에 불과하다. 좀 영적으로 깨달은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²⁷⁾

(2) 인간 예수에 천착(穿鑿)하기

“위조된 예수”(Fabricating Jesus)는 “예수님 폐위”(Dethroning Jesus)로 이어지고 이는 하나님 되심을 제거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인간 예수, 즉 역사적 예수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과거에 타부(taboo)시 되었던 예수님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이나 반감 없이 연구의 주제로 삼게 되었다.

(『다 빈치 코드』(The Da Vinci Code)가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후,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약성서의 절대적인 권위에서 벗어나는 데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Chopra, 2009: 185).

역사적 예수 탐구는 종교다원주의적 오늘날의 사회에서 더욱 인기를 모으고 있다. 예수님이 인간이라면 당연히 우리와 같아야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이형도는 이러한 생각을 ‘일반론’이라고 말한다. “일반론이란 사람은 누구나 성적 욕구를 가지고 있고, 사회는 이런 욕구를 결혼이라는 제도적 형태로 수용한다는 논리이다.”(이형도, 2005: 53-54) 예수님을 신 즉 하나님이 아닌 단순한 인간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당시의 사회 환경이나 관습에 간히게 되고, 인간의 육체에 간히게 되

27) 간디의 말이다. “나는 역사적 예수에는 한 번도 관심을 가져 본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결코 세상에 살았던 적이 없다고, 그리고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작가가 상상력을 동원해 꾸며낸 것이라고 누군가 입증한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산상수훈은 그래도 내게 여전히 참된 것일 테니까요.”(Beasley-Murray, 2004: 310 재인용).

었다. 일반론은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시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극복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연구자들은 역사적 예수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일반론을 극복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일반론의 대표적인 영역이 바로 예수님의 성과 지식, 그리고 동정녀 탄생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성에 대한 해석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오강남 교수도 “예수님의 성(性) 생활”(오강남, 2005: 192-196)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물론 지혜롭게 자신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고, 다만 읽는 사람들에게 의심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도록 강한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에서 말이다. 동성애자들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자들 중에는 동성애 행위에 대한 정당화의 근거로 예수님을 동성애자로 만들었다.(eg. John Shelby Spong 前 주교와 Theodore W. Jennings, Morton Smith). 이들은 영지주의 문서를 끄집어 들어서 동성애의 근거로 활용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동성애적 해석방법’을 사용하여 그러한 전략을 전개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독신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가톨릭 사제 등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결혼한 기혼자로 만들기도 했다.(William E. Phipps, Simcha Jacobovici and Charles Pellegrino).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혼했기 때문에, 당시 랍비들이 결혼했기에 결혼했다는 것이다. 가나의 혼인잔치도 예수님의 결혼축하 잔치고, 예수님에게 기름부음도 예수님의 결혼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서 볼 것이 있는데 역사적 예수에 대한 다양한 스펙트럼 중에서도 예수님을 영적인 스승이나 깊이 깨달은 사람으로 보는 경우에는 예수님의 성(性)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성적 결합(결혼이나 여러 성행위)이라는 것은 세속을 떠나지 않았다는 증거고, 깨달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이나 영성이 없는 증거인 수성(獸性)의 근원에 바로 성행위라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왜냐하면 영적인 사람인 간디와 붓다 모두 결혼생활을 단절을 가져왔기에 더욱 그럴 것이다.(예수님을 영적인 사람[spirit person]으로 보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양인, 특히 동양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에게 성은 그리 권하고 싶지 않는 세속의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²⁸⁾ 예로 들어 도올 김용옥 선생님은 예수의 결혼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비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역사적 예수를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결혼했던 사람이라고도 말한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포도주 이적의 가나 혼인 잔치나 예수 자신의 결혼식 설화가 변형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예수는 최소한 공생애를 통하여 독신이었다. 그리고 독신생활의 고귀함에 대해 긍정적 가치관을 내비쳤다”(김용옥, 2007: 424). 박영호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석가는 혼인을 하였다가 혼인을 풀어버렸으니 해혼[解婚]한 것이다. 예수는 혼인을 안 하고 혼인을 멀리하였으니 원혼[遠婚]이라고 하겠다.”(박영호, 2007: 299). 디팩 초프라도 “그의 열두 제자는 모두 결혼했고 대부분의 시간을 부인들과 함께했지만 예수의 결혼 여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누구도 심지어 예수 자신도 자기가 결혼을 했는지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이 때문에 예수가 마리아 막달레나와 결혼했다는 등의 새로운 신화를 창조하게 만드는 여지를 준다)”고 기

28) 성혜영 교수는 오강남 교수와는 대답에서 다음의 사실을 지적한다. “동양의 구루(guru)로 일컬어지던 깨달은 종교지도자들이 미국과 같은 서양 사회에서 스캔들을 일으킨 경우가 적지 않았습시다. 그리고 그 스캔들의 대부분은 성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컨대 티베트 출신 초감 트룽파(Trungpa)는 제자들과의 성관계를 비롯해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가 있었지요. 비슷한 사례로 인도의 묵타난타(Swami Muktananda) 역시 미국에서 미성년자들과 가진 성관계로 인해 떠들썩한 스캔들을 일으켰지요.”(오강남·성혜영, 2011: 106).

술하고 있다(Chopra, 2009: 185). 오강남 교수도 “예수님이 결혼을 했던 안 했건, 혹은 어떤 성적 경향성을 가지고 있었건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신학자의 논의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인간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를 완전히 신으로만 취급하여, 그가 마치 하늘에서 온 외계인처럼 지구에 잠깐 다녀가신 분, 그래서 우리 인간의 뜨거운 고뇌나 유혹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쯤으로 생각하려는 우리의 일방적 ‘상식’을 깨고 되 돌아보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련을 받은 자’(히4:15)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그렇게 다르신 분, 여기에 그의 위대하심이 있고, 여기에 우리가 그에게서 배울 점이 있는 것 아니나?”(오강남, 2005: 192) 오 교수님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에 대한 성에 대한 진술보다는 예수님이 인간이셨다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한 것처럼 보인다.

(3) 높은 경지에 오르기 위해 하늘 쳐다보기

정통기독교 비판가들은 인간 예수에 대한 천착은 인간 예수만을 쳐다보게 한다. 하나님인 예수님은 제거되었다. 인간 예수님은 기독교비판가들이 믿는 것처럼, 높은 영적경지(靈的境地)에 도달한 영적도인(靈的道人)에 불과하게 된다. 이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닮는 것은 그의 영성을 닮은 것에 불과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경지에 이르는 방법과 단계를 소개한다. 그리고 그 단계에 이를 것을 주문한다.

길희성 교수님이 “9. 영성의 대가를 만나다”(길희성, 2013: 208-237)에서 켄 윌버(Ken Wilber)의 “의식의 3단계”(209-211)를 소개하고, “초인격적 영성의 세계는 하나”(234-237)를 소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그런가 하면 디팍 초프라(Depak Chopra)는 “Part III. 예수는 수행의 안내자”에서 구체적으로 “신-의식을 향해 가는 15단계: 강의와 수련”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Chopra, 2009: 198-240).

본 연구자가 알기로는 일부 비교종교학자들이나 종교다원주의 학자들 가운데에서 불교나 선원에서 수행함은 물론이요, 그곳으로부터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는 증서와 비슷한 공인을 받은 이들도 있다고 들었다. 이들의 이러한 행동은 앞의 맥락에서 볼 때에 “높은 경지에 이르는 자”임을 드러내기 위한 자신들만의 조치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기독교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영역에서까지 자신의 실세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 말이다.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하기 전에 본 연구자 그러한 느낌이 든다.(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독교 신학-그것이 정통이든 비정통이든 떠나서-의 세계적인 전문가가 자신들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종교에 대해서 배운다는데요, 밑 가봐야 본전이 아니겠습니까?! 설사 그들에게 마스터 증서 한 장 써준다고 해서 그리 손해 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홍보효과가 만점인데 말입니다. 그 정도는 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니터(Paul Knitter) 교수의 예다. “2008년 여름 ... 허드슨강 근처에서 개리슨 연구소에서 있었던 열흘 간의 족첸 수련회가 끝나갈 무렵이었다. 나는 스승인 라마 존 매크란스키(그는 보스턴 대학의 불교학과 비교신학 교수이기도 하다)와 진지하게 대화한 후 불교에 ‘귀의(歸依)’하고 미국 족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보살서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연꽃 치유자’(Urgyen

Menla)라는 범명도 받았다.”(Knitter, 2011: 392).

3) 실천을 통해 어두운 하늘 쳐다보기

경정 텍스트로부터 눈을 돌리게 하고, 어두운 하늘의 쳐다보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하나님인 아닌 인간 예수 즉 역사적 예수로 만든 정통기독교 비판가들은 혹시 하나님인 예수에 대해 관심을 다시 가질까 봐 걱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실천만 쳐다보기’를 강조합니다. 실천을 강조함으로써 마치 영성의 증거라도 되는 양 실천에 가치를 둡니다.²⁹⁾ 그런데 이 “실천 쳐다보기”는 오늘날 우리의 사회 상황과도 너무나 매치(match)를 잘 이룹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변 환경이 모두 실천의 손길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너무나 심합니다. 한마디로 실천하지 못함에 대한 비판이기 때문입니다.

오강남 교수는 『예수는 있다』의 “V. ‘지금 여기’에서의 Mission”(오강남, 2005: 249 이하)의 “배타주의에서 다원주의로 지구적 책임”에서 지구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힘쓰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강남 교수는 빌 핍스(Bill Phipps) 목사는 소개합니다. 오강남 교수가 말한 것처럼 그의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발언과 부활에 대한 발언은 캐나다 교계에서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말이다. 왜 오강남 교수님이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까지도 빌 핍스 목사에 대해 책에서 소개하는 것일까요? “캐나다 최대 개신교 교단인 캐나다연합교회(United Church of Canada) 총회장으로 선출된 빌 핍스(Bill Phipps) 목사가 1997년 11월 2일 일간지 Ottawa Citizen지와 인터뷰에서 예수의 신성(神性)과 부활(復活)에 대한 발언이 캐나다 교계에서 문제가 되었다. … 핍스 목사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지구온난화, 굶주리는 어린이, 집 없는 사람 등의 문제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갖는다고 확신했다.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교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고통당하는 이웃과 세계를 위해 힘쓰는 일이다.”(오강남, 2005: 185, 187) 바로 실천의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길희성 교수의 폴 티너에 대한 소개의 목적도 동일한 맥락선상에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 가운데는 이론적·사상적 차원보다는 실천적 차원에서 다원주의론을 펴는 사람도 있다. 실천적 종교다원주의에 따르면, 종교의 궁극적 일치하는 어떤 종교적 체험이나 교리나 사상 또는 궁극적 실재에서보다는 정의와 사랑 같은 실천적 차원에서 찾는다. 이러한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적 학자는 폴 니터(Paul Knitter) 교수다. 그에 따르면 모든 종교는 내재적이고 초월적 신비의 경험을 통해서 인간과 자연의 복리를 구원으로 추구한다. 이 구원은 모든 종교의 공통된 관심사이고 궁극 목표이며, 종교의 가치와 진리를 판단하는 척도가 된다. 구원을 추구하고 경험하는 방식은 종교마다 다르지만, 어느 종교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의와 해방, 그리고 지구 환경의 보존이라는 실천적 과제를 무시하면 참다운 종교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어느 종교도 이러한 구원을 독점하거나 완전히 구현하지 못한다. 따라서 모든 종교는 실천적 과제와 이상을 놓고서 각기 한계를 의식하고 타종교와 대화하고 협력해야만 한다. 사실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29) 백인 불교도 사이에 ‘참여불교’(engaged buddhism)운동이 전개되고 있다고 한다.(길희성, 2005: 40).

이유 가운데 하나는 종교 간의 다툼과 갈등을 해결하려는 데 있다.”(길희성, 2013: 177). 디팩 초프라도 “예수라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나서(Chopra, 2009: 305-324) 구체적으로 1) 낙태, 2)동성애자의 권리, 3)여성의 권리, 4)전쟁, 5)용기, 6)진리를 말하기, 7)공감과 관용, 8)사랑과 용서 등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맥락이다.(물론 초프라가 제시하고 있는 실천의 정통기독교와 다른 점이 많다는 것이다).

정통기독교 비판가들이 실천의 강조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이제 실천의 삶으로 승부를 낸다는 것이지요. 사실 사회생물학자인 에드워드 윌슨(Edward O. Wilson)이 종의 다양성과 환경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호소하였던 것처럼, 이들 정통기독교 비판가들은 사회문제에 대한 실천적 대안을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실천을 통해 승리를 내자는 심정으로 말입니다. 본질을 빼고 행동으로 말하자고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찾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늘도 사람들의 시선을 고정시킬 그 무엇인가를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III 나가는 말

1 요약

정통기독교 비판가들이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떠한 논리를 전개하는지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정통기독교 비판가들이 정통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전술로는 “손가락 없애기” 전술과 “어두운 하늘 맹목적 쳐다보기” 전술이다.(이는 본 연구가가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는 비판가들의 주장에서 따온 용어다.) 구체적으로 이들 비판가들의 전술은 다음과 같다.

1) ‘손가락 없애기’ 전술이다. 먼저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술로 잘못된 극단적 성경 해석을 인용하거나 과거 과학과 상반된 성경해석을 인용하는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다른 텍스트들에게 정경적권위(正經的權威)를 부여하기 위한 전술로는 정경 이외의 기독교 문서에 권위를 부여하거나, 타종교 문서에 권위를 부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 전략의 일차적 목표는 손가락을 없애는 것이다. 즉 정경의 권위를 마비(痲痺)시키는 것이다.

2) ‘어두운 하늘 맹목적 쳐다보기’ 전술이다. 이 전술은 먼저 어두운 하늘에서 실체를 쳐다볼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어두운 하늘에서 역사적 예수만을 쳐다볼 것을 요구하는 경우다. 역사적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왕좌에서 예수를 폐위시키고, 인간 예수에만 천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는 곧 영성이라는 이름의 높은 경지에 오를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실천을 강조하면서 어두운 하늘을 쳐다보도록 한다는 것이다. 성경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을 보더라도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를 보더라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볼 수 없고 다만 인간이신 역사적 예수밖에 볼 수 없고, 그 예수는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된다. 오직 실체(Reality, 그들이 말하는 신[god(s)])만이 존재한다. 신은 이제 이야기하지 않는다. 다만 실천만을 강조할 뿐이다.

2 제언

1) **하나님의 말씀인 정경에 대한 천착 필요:** 정통기독교 비판가들의 전술로부터 정통기독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권위에 대한 중요성을 지각하고, 더욱더 성경의 하나님 말씀됨을 강조하는 교육으로 이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성경해석이 바로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성경해석에 더욱 더 신중을 가해야 할 것이다. 이는 올바른 성경관이 올바른 신론과 더불어 올바른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이다. 오강남 교수가 기술한, 미국 텍사스 주 샌 안토니오에서 ‘메스티조’(Mestizo, 스페인계와 미국 인디안계의 혼혈)들을 위해 목회하고 있는 버질리오 엘리존도(Vergilio Elizondo) 신부의 다음의 말을 매우 올바른 지적이다.

각 세대는 자기들이 당면한 가장 깊은 추구에 부흥해서 자기의 예수상을 형성하게 된다. 그들이 예수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인 셈이다.(Every generation tends to build an image of Jesus in response to its deepest quest …… When they are writing about Jesus, they are really writing about themselves. Time. (December 11, 2000), 59.](오강남, 2005: 218 재인용).

그렇다면 범하기 쉬운 “자기의 예수상의 형성”이라는 이러한 오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올바른 텍스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만이 이러한 잘못된 오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다른 방법은 없다. 정경으로 벗어난 예수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가 그 누구이던 간에 상관없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정경과는 전혀 관계없는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스펙트럼만을 생산하게 된다. 올바른 예수상을 갖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정경인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에 집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아노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마4:4) 말씀하시며 마귀를 꾸짖으셨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성경을 vox Dei, 하나님의 음성) 혹은 버bum Dei (Verbum Dei, 하나님의 말씀)라고 단언하면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반복해왔다”(Sproul, 2013: 44).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와 묵상에 더욱 더 매진해야 할 것이다.

2) **바른 교리에 근거한 바른 실천 필요:** 정통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실천을 만을 통해서 기독교를 평가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더욱 더 올바른 교리에 근거를 둔 사회적 실천(행동)에 더욱더 매진함으로써 기독교가 입의 종교가 아닌 생동하는 역동적인 기독교임을 나타내 보여야 할 것이다. 기독교에 속하지 않는 세인들은 정통기독교와 이들의 비판가들이 제시하는 기독교는 본질적 차이점을 구별하지 못한다. 아니 구별하는데 아무런 관심도 갖고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정통기독교와 정통기독교 비판가들, 이들 양자 간의 갈등은 이들에게 강 건너 불구경에 불과할 것이다. 단지 이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외형(실천)에 평가의 포인트를 줄 것이다. 그렇다면 바른 교리에 근거한 바른 실천은 시대적 요청인 것이다.³⁰⁾ 입으로

30) 다른 신앙과 다른 목적을 가졌지만 스펙트럼 전(前)주교의 다음과 같은 지적을 매우 의미 있는 지적이라 하겠다. “우리의 하나님 이해가 변화될 때, 우리가 서 있는 도덕적 발판도 바뀐다. 윤리를 위한 전통적 근거는 사라질 것이다. 만일 우주를 다스리는 유신론적 존재가 없다고 하면, 법을 준 사람도, 또는 변경할 수

소리내기 전에 손과 발로 행하는 것만이 바로 정통기독교가 바로 영적으로 살아 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내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의 증거가 될 것이다.

3 재구성.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만 보라는 저들의 논리를 재구성해 보기로 하자. 논리를 재구성함으로써 저들 정통기독교 비판가들의 논리가 잘못된 것임을 보이기 위함이다. 오늘날은 종교다원사회다. 할 수 없다. 이것은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해야 한다. 본 연구자에게 진리는 하나다. 기독교만이 진리다. 그렇지만 본 연구자도 현실적으로 다른 종교들과의 공존 속에 살아야한다.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진리가 있다는 말이 아님 또한 유의하여야 하며, 그들에 대한 시민적 교양을 추구해야 함 또한 기억해야 한다. 이들 종교는 자신들의 신을 주장한다. 그렇다면 달들이(본 연구자가 구원자로 믿는 하나님(God)과 저들이 자신들의 신(gods)이라고 믿는 실체가) 여럿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늘에 달(진리, 신, 실체, 하느님 등으로 불리는)이 하나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손가락을 볼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달이 하나가 아닐 때는 어떨 것인가? 달이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가락을 보지 않더라도 달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구지 손가락이 필요 없는 것이다. 만약 달이 아니라, 별이라면 이 논리를 어떻게 변할까? 아니다. ‘달’(moon) 대신 ‘별’(stars)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종교마다 다른 신(무신론자들도 ‘자신들의 신’을 제시한다. 비판가들이 ‘종교다원적 사회’ 또는 ‘종교다원사회’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또 이들 중 많은 수는 실질적으로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아니던가?)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별이 많은데 어떻게 지시하고 있는 손가락을 통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별을 볼 수 있겠는가? “아니, 이것 말고, 저 별. 아니 저기 저 멀리 있는 저별. 야, 이 바보야 안보여, 저기 저 별.(아직도 해매고 있는 사람에게 한 숨을 쉬면서). 내 손가락이 가리키는 별을 바라봐! 음 맞았어. 바로 저 별이야!”라는 대화가 존재할 수밖에 없음은 비디오를 보듯 흰하다. 아마 이런 경험이 남의 경험만이 아닌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이다.

어렸을 때에 구름을 보면서 구름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친구와 다투었던, 아니 서로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우겼던 경험이 없는가? 구름의 모양새를 보고 서로 주장하였던 기억 말이다. 구름이 많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반드시 가리켜야만 한다.(굳이 손가락은 아닐 만정, 막대기 등으로) 그리고 자신이 가리킨 구름과 친구가 본 구름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심지어는 비록 내가 가리킨 구름과 친구가 바라본 구름이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간의 보는 관점의 차이 때문에 그 구름의 모양이 무엇이네. 무슨 모양을 닮았네. 서로 다른 자신들의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만약 손가락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동일한 것을 보더라도, 인식의 차이가 있는데 하물며, 가리키는 손가락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반드시 손가락은 있어야만 한다. 오늘날 종교다원사회에서는 더욱 더. 그래야만 정확한 별을 볼 수 있다. 그래야만 서로간의 진정한 대화는 계속되어질 수 있다.

없는 법을 성서 본문 속에 써넣은 불손가락(fiery finger) 또한 없다. 따라서 그런 모든 주장들도 다 내버려야 한다.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순히 성서를 인용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도덕적 잣대가 비뚤어진 것이고 만연한 불안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Spong, 2005: 307). 다만 스폰과 다르게 우리는 정통기독교가 가르쳐주는 신관에 근거한 사회적 실천을 해야만 할 뿐이다.

참고문헌

- 강상우 (2013. 12). “새로운’ 무신론의 신 : 도킨스, 해리스, 데닛, 히친스와 스텐저를 중심으로”. 기독교문학회. (통권 30호); <http://www.worldview.or.kr/library/article/1804> 자료참조
- 길희성 (2013). 『길은 달라도 같은 산을 오른다』. 서울: 휴.
- _____ (2005). 『보살예수: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창조적 만남』. 2쇄. 서울: 현암사. 2005)
- 김구원 (2013).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복있는사람.
- 김용욱 (2007). 『기독교성서의 이해』. 서울: 통나무.
- 박영돈 (2011). 『성령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 개정5쇄. 서울: SFC.
- 박영호 (2009). 『메타노에오, 신화를 벗은 예수』. 서울: 인물과사상사.
- _____ (2007). 『잃어버린 예수: 다석 사상으로 다시 읽는 요한복음』. 서울: 교양인.
- _____ (2000). 『多石 柳永模가 본 예수와 기독교』. 서울: 두레.
- 오강남 (2011). 『종교, 심층을 보다』. 서울: 현암사.
- _____ (2008). 『움켜쥔 손을 펴라』. 서울: 예담.
- _____ (2006). 『불교, 이웃종교로 읽다』. 서울: 현암사.
- _____ (2005). 『예수는 없다』. 31쇄. 서울: 현암사.
- _____·성혜영 (2011). 『종교, 이제는 깨달음이다』. 서울: 북성재.
- 윤철민 (2013). 『개혁신학 vs. 창조과학』. 서울: CLC.
- 이국진 (2011). 『예수는 있다』. 개정증보판.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 이형도 (2005). 『다 빈치 코드의 비밀문서』. 이레미디어.
- 지윤민 (2012). 『기독교의 거짓말』. 파주: 유리창.
- Barker, D. (2008). *Godless*. Ulysses Press. 공윤조 역 (2011). 『신은 없다』. 서울: 치우.
- Beasley-Murray, Paul (2000). *The Message of the Resurrection: Christ is risen!* Leicester: IVP. 정옥배 역 (2004). 『부활』. 서울: IVP.
- Bock, Darrell L. & Daniel B. Wallace (2007). *Dethroning Jesus*. Nashville. TN: Thomas Nelson. 박규태 역 (2012). 『예수 폐위』.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 Chopra, Deepak (2008). *The Third Jesus*. 이용 역 (2009). 『제3의 예수』. 서울: 송정.
- _____ & Leonard Mlodinow (2011). *War of the Worldview: Science vs. Spirituality*. 류운 역(2013). 『세계관의 전쟁』. 파주: 문학동네.
- Dawkins, R. (2011). *The Magic of Reality*. 김명남 역 (2012). 『현실 그 가슴 뛰는 마법』. 파주: 김영사
- _____ (1991). *The Blind Watchmaker*. 이용철 역 (2004). 『눈먼시계공』. 사이언스북스.
- Evans, Craig A. (2006). *Fabricating Jesus*. Downer Groves. Ill: IVP. 성기문 역 (2011). 『만들어진 예수: 누가 예수를 왜곡하는가』. 서울: 새물결플러스.
- Freke, Timothy and Peter Gandy (1999). *The Jesus Mysteries*. HarperCollins. 승영조 (2009a). 『예수는 신화다』. 서울: 미지북스.
- _____ (n.d). *The Laughing Jesus: Religious Lies and Gnostic Wisdom*. 유승중 역 (2009b). 『웃고 있는 예수』. 어문학사.
- Harris, S. (2008). *Letter to a Christian Nation*. Vintage Books. 박상준 역 (2008). 『기독교국가에 보내는 편지』. 파주: 동녘사이언스.
- Harrisville, Roy A. &Walter Sundberg (1995). *The Bible in Modern Culture*. 남정우 역 (2002). 『문화변혁과 성경읽기』.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Helm, Paul (1993). *The Providence of God*. 이승구 역 (2004). 『하나님의 섭리』. 서울: IVP.

- Hitchens, C. (2007). *God is Not Great*. 김승욱 역 (2008). 『신은 위대하지 않다』. 알마.
- Hoeller, S. A. (2002). *Gnosticism*. 이재길 역 (2006). 『이것이 영지주의다』. 서울: 산티.
- Hughes, B. (2010). *The Hemlock Cup*. 강경이 역 (2013). 『아테네의 변명』. 1판2쇄. 옥당.
- Hutin, Serge (n.d.). *Les Gnostiques*. 황준성 역 (1996). 『신비의 지식, 그노시즘』. 문학동네.
- Johnson, Luke Timothy (1998). *The Real Jesus*. 손혜숙 역 (2003). 『누가 예수를 부인하는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Knitter, Paul F. (n.d). *Without Buddha, I Could not be a Christian*. 정경일·이창엽 공역 (2011). 『붓다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었다』. 서울: 클리어마인트.
- Kistler, Don (Eds). (2009). *Sola Scriptura*. 조계광 역 (2011). 『오직 성경으로』. 서울: 지평서원. 특히 R. C. Sproul. “3장. 성경은 어떻게 확립되었는가?”. 85-112.
- McCartney, Dan and Charles Clayton (1994). *Let the Reader Understand: A guide to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Bible*. 김동수 역 (2000). 『성경 해석학』. 서울: IVP.
- Pagels, E. (1981). *The Gnostic Gospels*. 방건웅·박희순 공역 (2006). 『성서 밖의 예수』. 서울: 정신세계사.
- * 이 책은 Elaine Pagels (1981). *The Gnostic Gospels*. New York: Random House. 하연희 역 (2008). 『숨겨진 복음서 영지주의』 라는 제목으로 번역되기도 했다. 본 연구자는 방건웅·박희순 공역이 개인적으로 읽기 편해 선택했다. 비록 오자(誤字)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읽기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게 된 것이다.
- Rajneesh, Osho (1974). *The Mustard Seed*. 박노근 역 (1997). 『도마복음강의』. 서울: 예문.
- Ray, Darrel W. (2012). *Sex & God*. 김승욱 역 (2013). 『침대위의 신』. 서울: 어마어마.
- Shorto, R. (2008). *Descartes' Bones*. 강경이 역 (2013). 『데카르트의 사라진 유골』. 옥당.
- Spong, John Shelby (2001). *A New Christianity for a New World*. 최중수 역 (2005). 『새 시대를 위한 새 기독교』. 고양: 한국기독교연구소.
- _____ (1998). *Why Christianity Must Change or Die*. 이준우 역 (2001). 『기독교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고양: 한국기독교연구소.
- Sproul, R. C. (1992). *Essential Truths of the Christian Faith*. 윤혜경 역 (2013). 『기독교의 핵심진리 102가지』. 2판. 서울: 생명의말씀사.
- Stein, Robert H. (1996). *Jesus the Messiah*. 황영철 역 (2001). 『메시아 예수』. 서울: IVP.
- Stenger, V. J. (2008). *God: The Failed Hypothesis*. Prometheus. 김미선 역 (2010). 『물리학의 세계에 신의 공간은 없다』. 서울: 서커스.
- Zacharias, Ravi and Norman Geisler (Eds). (2003). *Who Made God?* Grand Rapids, MI: Zondervan. 박세혁 역 (2005). 『누가 하나님을 만들었을까』. 서울: 사랑플러스. 특히 Lee Strobel, “그리스도에 관한 좀 더 까다로운 질문들”, 108-131 참조.